

지역 소식통

완주군, 18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오는 18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3일 완주군 보건소는 18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주수에 상관없음)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먼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만 65세~69세 어르신과 취약계층은 21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12일부터, 만 70세~74세 이상 어르신은 18일, 만 65세~69세는 21일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누리집) 및 콜센터(1339 및 088-290-4110)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만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가정세대, 결혼이주여성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접종이 진행된다.

그 외 완주군민은 유료접종(예방접종비 1만원)을 실시한다.

한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 접종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어린이의 경우 2회 접종자는 9월 14일부터, 1회 접종자는 14일부터, 임신부는 주수에 상관없이 9월 14일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대폭 향상 제공

김제시가 보건의료시설 개선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하여 시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 제공하기로 해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가 현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공형사립모델링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김제시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7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국·도비 82억원 포함 총 8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공공 보건 의료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김제시보건소는 13일 김제시 청 지하 대강당에서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김제,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란 주제로 치매극복을 위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하였다.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파트너, 치매극복선도단체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 참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 표창대 전수, 예술공연 등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치매안심센터의 그간 활동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중장년층 인구 ↑

40~64세 주민등록 기준시 3만6755명... 최근 6개월동안 230여명 늘어

단계별 귀농귀촌 지원·은퇴자 대상 문화 활동·평생교육 등 활성화 주인

완주군(군수 박성일)의 40세 이상 64세 미만의 중장년층 인구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세대별 맞춤형 지원책과 귀농귀촌 지원 등 완주군민의 차별화된 정책이 중장년층을 끌어들이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40~64세의 중장년층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시 총 3만6,755명으로 최근 6개월 새 230여 명이 증가했다. 중장년층 인구는 작년 1월말 해도 3만6,482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소폭 증가세를 유지해 최근 3만6,700명대로 안정했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중장년층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한때 39.7%까지 떨어진 후 작년 말엔 40.0%로 올랐고 올 3월 중 40.1% 올 6월 중 40.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9월 중에는 중장년층 비중이 40.3%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읍면으로는 동상면이 47.9%를 기록해 단연 1위를 달렸고 구이면 43.6% 상관면 42.1% 등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인구 증가는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완주군은 주택 신축과 매입, 수리비(세대당 최대 500만원)를 지원하고, 농지매입과 임차비 지원(세대당 최대 250만원), 비닐하우스 신축비(세대당 최대 900만원), 이사비(50만), 교육훈련비(세대당 최대 30만원)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덕분에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인 통계에서 완주군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총 3,637가구에 4,793명을 기록, 전북으로 귀농·귀촌한 가구의 약 22%를 차지하기도 했다. 중장년층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함께 퇴직한 60대 초반을 위한 정주여

건 기반 마련과 도·농 복합도시의 매력적인 로컬푸드, 활발한 공동체 활동 등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돼 있어 완주군 중장년층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완주군은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와 인생 이모작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평생 교육 학습 프로그램 강화 등에 적극 나서 중장년층 유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아어서 관심을 끈다.

한편 올 9월말 현재 완주군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0세에서 17세의 아동인구가 전체의 14.3%를 차지했으며, 18~39세의 청년 인구는 21.1%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4.2%인 것으로 분석됐다.

완주군의 13개 읍면 중에서 청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이서면(26.3%)과 봉동읍(25.2%)이며, 봉동읍과 삼례읍, 이서면 등 이른바 봉산이 빅 3의 인구 점유율도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이종복 기자

새만금 농어촌공, '농산어촌 행복충전' 펼쳐

김제 백산어느 농원 찾아

배 수확·적과작업 등 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이소열)은 13일,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

산어촌 행복충전활동'을 실시했다.

사업단 직원 20여명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x' 농원을 찾아 배 수확에 힘을 보태고 팀을 나눠 배 적과작업 및 운반작업, 폐농약병 수거 작업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가 관계자는 "배

수확시기를 놓치면 식감이 나빠지고 상품 가치가 낮아져서 걱정했는데 때 마침 사업단 직원들이 도와줘서 한시를 놓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소열 단장은 "농업인들의 정성과 땀이 담겨있는 농산물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공주팔쥐도서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한국생산성본부 서비스 전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더 행복한 파트너스의 김향미 대표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친절서비스 차별화

완주 공주팔쥐도서관, 전 직원 친절교육 진행

완주군(군수 박성일) 공주팔쥐도서관이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에 차별화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공주팔쥐도서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한국생산성본부 서비스 전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더 행복한 파트너스의 김향미 대표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주팔쥐도서관은 이용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 문화'를 주제로 공공기관 서비스 트렌드를 반영한 고객 응대

방법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친절교육에 이어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위해 복무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애희 소장은 "다양한 고객의 민원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감동을 주는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 이경애 의원

부위원장 - 윤수봉 의원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1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를 열고 위원장에 이경애 의원을, 부위원장에 윤수봉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2021년 행감특위 이경애 위원장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고유의 권한으로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행감특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행감특위는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완주군이 더



이경애 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수봉 부위원장은 "행감특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14일에는 행감특위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내년 신중년 일자리 공모 선정

김제시, 사업비 5억8000만원 확보... 경력형으로 4년 연속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 국·도비 5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4개 사업을 통해 52명의 퇴직 전문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5명이 증가하였고,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도비 5억 8천만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 2억여 원이 증가한 8억 8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4개 사업은 ▲ 찾아가는 Life Care 코디네이터 운영(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 소상공인 희망서포터즈 ▲ 지역이동센터 운영(매지저) ▲ 백세 건강 지킴이 이며, 전문자격 또는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신중년을 채용해 분야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Life Care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은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분야, 주거환경 개선 및 정리 수납분야, 전기·전자제품 수리 분야, 와상환자

대상 이·미용서비스 지원분야, 식생활 취약계층 식물관리 분야, 맞춤형 운동서비스 지원분야 총 6개 분야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을 단절 없이 활용해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신중년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퇴직한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의 경력형성을 통해 참여자가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제시는 '소상공인 희망 서포터즈' 외 5개 분야에 37명이 참여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천지역수고회의 대표와 12지파장이
"요한계시록 새 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2021.10.18.~12.27. 매주 월, 목 오전 10시

YouTube 신천지 공식 유튜브채널 시청보시순출
https://youtube.com/user/5-IncherryChurch

문의전화 063-211-3927